

# 취업자 수 증감의 원인 및 전망

오상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2016년 1월에 취업자 수는 33만 9천 명 증가
  - 지난달 49만 5천 명 증가에는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컸음
- ◎ 고용률은 0.1%p 상승하였는데, 이는 여성 고용률 증가 때문임
  - 여성 고용률이 0.4%p 상승하였으나, 남성 고용률은 0.2%p 하락
  - 여성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
- ◎ 청년 고용률은 0.4%p 상승하였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음
  - 2015년 초반에는 재학생, 후반에는 졸업생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, 2016년 1월에는 재학생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청년 전체의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음
  - 특히 지난 몇 달간 재학생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는데, 고용률의 변화 없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취업에 실패하여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예정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
    - 2월과 3월 20대 취업자 수 변화를 살필 필요가 있음
    - ※ 전국 4년제 대학 138곳 중 98곳(약 71%)에서 졸업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음
  - 상식적으로는 20대 초반 인구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전체 청년 취업자 수가 늘어나야 하지만,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기를 기대

하기는 힘들

- ◎ 업종별로 보면,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농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약화
  -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, 세부 업종별 취업자 증감에도 큰 변화는 없음. 조선업 구조조정 및 무역량 축소의 영향을 받아 증가폭은 축소되었지만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
  - 도소매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매우 큼. 2~3개월 동안 상당한 취업자 감소는 있겠지만 그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
    -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진행된 급격한 취업자 증가(2015년 1월이 고점)가 있던 후 2015년 상반기 중에 고용조정이 있었고, 그 이후에는 일정한 고용규모를 유지하고 있음
  -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국면에 있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월별 변화폭이 매우 클 것임
  -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로 전환되었으나, 금융업의 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증가폭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, 소폭의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
  - 복지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와 보건업 취업자 수 감소로 보건복지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음. 보건업의 취업자 수 감소에는 기저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며, 이러한 상황은 상반기 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 -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에도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에 증가폭 축소가 더 심해지면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현재보다 축소될 수도 있음
- ◎ 종합하자면, 2015년 12월에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, 2016년 1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015년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였음
  - 상반기 중에는 1월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